

## 충남도, 새로운 도약 위한 2020프로젝트 추진

- 충남발전연구원에서 전문가와 워크숍 가져



충남도가 새로운 미래를 개척하고 도약하기 위한 2020프로젝트를 추진한다.

도는 내년부터 오는 2020년까지 비전과 전략을 마련하기 위하여 충남발전연구원(원장 김용웅)과 공동으로 10월 8일(목) 오후 2시 충발연에서 워크숍을 갖고, 충남 발전의 중장기적 프로젝트 마련에 나섰다.

이날 워크숍은 새로운 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충남의 미래를 개척하고 기 연구되었던 분야별 2020 중점 추진 프로젝트 재분석은 물론 추가적인 핵심 과제 발굴을 위한 기본틀을 마련하고자 마련되었다.

워크숍은 총괄 부문, 농업·농촌, 투자통상, 지역산업경제, 문화관광, 도시지역개발, 환경, 복지, 행정 등 9개 분야 전문가의 발표에 이어 충발연 연구진 및 도청 관계 공무원 등 40여 명의 종합토론으로 진행되었다.

이 자리에서 충남도 이인화 행정부지사는 “충남의 미래도약과 번영을 위한 장기적 안목의 정책방향 제시가 필요하다”며 “새로운 변화의 트렌드를 철저하게 분석하고 실행력을 갖춘 프

로젝트를 만들어 달라”고 주문했다.

이날 충남 2020 비전과 전략의 총괄 부분에 대해 발표한 한남대 정순오 교수는 “충남은 서북부권을 중심으로 한 수출주도형 산업구조가 지속적으로 강세를 보이는 반면, 독자적 비즈니스 도시의 부재 및 전통적 농업 지역이라는 약점을 지니고 있다.”며 “세계화, 저출산·고령화, 고용없는 성장, 지방자치 실현 등 국제적 트렌드 속에서 충남의 미래를 그려나갈 수 있는 안목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정 교수는 “정부가 추진하는 국책 사업 중 충남과 직접적 관련있는 행정중심복합도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초광역경제권 개발 등에 대한 다양한 가능성을 예측하여 사전에 철저히 준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도시 및 지역개발 분야를 발표한 공주대학교 정환영 교수는 “정부는 그동안 국토균형발전을 명분으로 지역 간 불균형 해소와 자립형 지방화 촉진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추구해 왔으나, 산술적·결과적 균형에 집착한 나머지 실질적인 지역발전과 국가경쟁력으로서의 연계에는 한계를 보인 것이 사실이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충남도 역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불균형 발전과 마찬가지로 수도권과 인접한 충남 북부권과 금강주변 시·군의 발전 격차를 보이는 등 이러한 도내 시군별·권역별 불균형 현상은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하면서

“이러한 지역불균형 성장은 지역의 성장 잠재력을 약화시키고, 상대적 박탈감을 강화시켜 지역의 자생적 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충남도는 지역 내 지역불균형 성장을 고려하여 지역간 성장이 균등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충남의 도시 및 지역발전 추진전략으로 ▲광역권 거버넌스체계 구축 ▲금강 살리기 사업 연חד도시권 개발 ▲지역개발과 문화재보전이 연계된 고도보존정책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구축 ▲당진항을 중심으로 한 국제도시화 전략 ▲한민족분화허브 설립 도시재생 및

구도심 활성화 ▲명품도시 건설” 등을 중심축으로 제안했다.

문화관광분야를 발표한 한국문화관광연구원 김향자 선임연구위원은 “국제관광시장은 2010년 10억명, 2020년 16억명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특히 동북아관광시장의 관광객 유치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이라고 언급하면서 “국내관광시장은 2008년 기준 관광경쟁력 부문에서 71위를 차지하여 관광 인프라 부족과 관광산업구조의 영세성을 드러냈으며, 특히, 우리나라는 관광산업에 대한 인식 수준이 세계133개국 중 114위로 관광을 생산적 생활문화 및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산업이라는 인식의 개선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에 김 선임연구위원은 “특히, 충남은 상대적으로 축제 및 관광자원은 우위를 점하고 있으나 문화자원이나 문화시설, 관광유인력 등은 타 시도에 비해 상당히 부족한 상태다.”라고 지적하면서 “충남 고유의 역사문화자원을 현대적으로 해석하고, 대중국 문화관광의 교두보 역할로 자리잡기 위한 정책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충남도, 2010년 국제교류 및 투자통상활동 계획 발표

- 지원외교활동강화, 투자 15억달러, 수출420억달러 목표 제시

지난 7월 투자통상실을 경제산업국과 분리한 바 있는 충남도가 2010년도에도 경제1등을 유지하기 위한 바쁜 잔걸음을 시작했다.

세계경제가 회복국면에 진입하고 각국의 이해관계에 따라 활발한 FTA 체결이 이뤄지는 등 급변하는 세계경제 질서 속에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투자유치와 수출지원 시책을 추진하기 위한 2010년 국제교류 및 투자통상 활동계획을 수립, 발표한 것이다.

발표된 충남도의 계획을 보면李志사 공약사항인 “외자유치 50억달러”를 재임 잔여기간 1년 여를 앞둔 지난 9월에 조기 달성한 가운데 2010년 외자유치 목표를 금년 유치 계획인 12억달러보다 25%가 늘어난 15억달러로 정하였다.

또한 충남도 수출역시 금년 350억달러의 20%가 늘어난 420억달러로 목표를 정하는 등 공격적인 투자유치활동과 적극적인 수출지원활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내년 9월에 개최되는 “세계대백제전”에 20여 해외교류자치단체를 초청하고, 한-EU FTA체결에 따른 유럽과의 교류협력 강화, 자원확보를 위한 국제교류 증진 등을 골자로 하는 국제 교류계획도 함께 발표했다. 구체적인 충남도의 활동계획을 보면 러시아와의 교류협력 10주년 행사 등 유럽과의 교류협력을 강화하고 중동석유 자본유치를 위한 중동과의 교류, 미래자원의 보고인 남미지역과의 교류확대, 세계대백제전 홍보를 위한 일본 홋카이도 방문에 이어 중국 개방의 진원지인 광둥성과 동북 물류중심지 랴오닝성 등과 교류협력을 확대하는 등의 국제교류 활동 계획과 석유자본, 관광서비스, 영상, 녹색산업 중심의 투자 유치를 위하여 미국, 사우디, 영국 등 세계 우수기업의 도내 유치를 위한 7회의 해외출장 계획 등을 함께 발표했다.

한편 2010년 충남도의 수출은 세계 경제 회복과 도 수출 주종품목인 반도체, LCD의 수출 회복세 등을 감안, 금년보다 20%증가한 420억달러를 목표로 정하였다. 이를 위해 도에서는 12회의 무역사절단을 파견하고 세계 유명박람회에 스무차례 이상 참가하는 등의 수출지원시책을 추진하며 특히 2008년 전국 자치단체로는 처음으로 단독 개최한 충남 우수상품전을 정례적으로 개최하여 충남 상품의 수출 종합전시회로 정착시켜 나아간다는 방침이다.

## 충남도, 2010년도 균형발전사업 시행계획 확정

- 도내 낙후지역 균형발전사업 22지구 820억원 투자

충남도가 내년도 균형발전사업 시행계획을 확정했다. 도는 오는 2010년도에 도내 낙후지역 총 22지구에 820억원을 투자하기로 했다고 10월 30일 밝혔다. 이번에 확정된 '10년도 충청남도 균형발전사업 시행계획'은 기 수립한 충청남도 균형발전 개발계획에 반영된 사업 중에서 매년 실질적인 사업추진이 가능하도록 하는 집행계획이며, 3개 분야별 사업내역으로는 ▲문화관광분야는 공주시 문화관광지 조성 74억원 등 10지구 542억원 ▲기반시설 확충분야는 국방대학교 이전지원 18억7천5백만원 등 3지구 43억5천만원 ▲지역특화분야는 금산군 인삼명품화사업 17억4천만원 등 9지구 234억2천8백만원을 투자한다. 시군별로 보면 ▲공주시 공주문화관광지 조성 74억원 1지구 ▲보령시 舊 대천역 문화관광지구 조성 90억원 1지구 ▲논산시 백제군사박물관테마공원 조성 40억원 등 3지구 금산군 인삼약초건강체험장 조성사업 47억1천2백만원 등 8지구 ▲부여군 서동요 역사관광지 조성사업 80억원 등 2지구 ▲서천군 장항선 폐선활용 관광진흥사업 74억원 등 2지구 청양군 은곡 2농공단지 조성 50억원 등 3지구 ▲태안군 백사장항 해양관광 자원개발 74억원 등 2지구이다.

재원별로는 국비 266억원 도비 272억원 시군비, 기타 등 281억7천8백만원 등 총 819억7천8백만원을 투자하게 된다.

도 관계자는 "도내 낙후지역 균형발전을 위하여 올해 842억3천3백만원을 투자한데 이어 내년에도 819억7천8백만원을 투자하는 등 앞으로 2012년까지 낙후된 서남부지역을 집중 지원, 도내 전체의 경쟁력을 높이고 균형있는 지역발전을 도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도는 30일(금) 오후 4시 도청 대회의실에서 도의원 및 대학교수, 전문가 등 20명이 참석한 가운데 충청남도 균형발전위원회를 개최하여 2012년까지 52개 사업지구 4,997억원을 투자하는 충청남도 균형발전개발계획 변경계획과 오는 2010년도에 820억원을 투자하여 추진할 균형발전사업 시행계획을 확정했다. 한편, 충남도가 추진하고 있는 균형발전사업은 서북부권 중심의 산업발전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된 서남부권의 성장동력사업 지원으로 도내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공주·보령·논산시·금산·부여·서천·청양·태안군 등 낙후지역 8개 시군에 집중 투자하게 된다.

## 충남도, 신재생에너지 마스터플랜 수립

- '15년까지 5천8백억원 투입, 신재생에너지 보급률 1%로 확대

충남도가 2015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보급률을 현재 0.2%에서 1%로 높이는 내용의 신재생에너지 보급 로드맵을 마련했다.

충남도는 이를 실현하기 위해 신재생에너지 ▲인프라 구축 ▲보급확대 ▲산업육성 부문에 5천8백억원을 투입하여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된다.

그 주요전략으로 도내 대학·연구소·업체 등과 협력체계를 이루어 우수기술 개발 및 인력양성과 지원센터 설치 등의 인프라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공공·사회복지시설에 태양광·태양열·지열 등을 연차적으로 확대 보급하고 ▲그린홈 1만2천호 ▲농·산·어촌형 에너지자립마을 26개소 축산바이오가스발전소 5기 우드펠릿 생산시설 5기 ▲시설농가 지열시스템 66개소 ▲소수력발전소 3기를 건설할 계획이다.

폐자원의 에너지화를 위해 ▲RDF(쓰레기 추출 고형연료) 생산·이용설비 4개소 하수슬러지 연료화 3개소 ▲LFG(매립가스) 이용 발전설비 2개소 ▲소각열 회수 및 이용시설 4개소를 건설한다. 아울러, '12년까지 태안군 이원·원북 일원에 ▲16mw급 태양광발전소 ▲100mw급 해상풍력발전단지 ▲바이오에너지 생산시설 등의 종합에너지특구를 조성하며, 바이오가스, 우드칩, 지열, 매립가스를 이용한 발전설비 5개소 등을 건설할 계획이다. 이에 '12년 새롭게 출발하는 도청 이전 신도시를 공공청사와 주택, 학교 등에 총 10.4%를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는 등 신도시 및 택지개발 지구도 전략적 녹색도시로 조성할 방침이다. 또한, 도내 반도체 산업기반을 이용한 태양광소재와 부품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태양전지 제조장비 국산화를 위해 '14년까지 440여억원을 투입하여 태양전지 클러스터를 중점 육성하며 도내 대학·연구기관 등에 구축된 지열관련 인프라 및 풍부한 잠재량 보유 강점을 살려 실증연구 및 시범사업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하여 지열산업을 특화하고 보급을 선도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에 발표된 신재생에너지 마스터플랜은 국책연구기관인 에너지경제연구원에 용역을 통하여 수립하였으며, "연간 40만TOE의 화석연료를 대체함으로써 2억3천만달러의 원유수입과 1백2십만톤의 이산화탄소를 저감하는 등 '저탄소 녹색성장' 비전 실현에 큰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